



Market Index / 10일

코스피지수 ▼	2958.12 -18.00	코스닥지수 ▼	890.07 -6.29	유가(WTI, 달러) ▼	64.01 -1.04	환율(원)	1USD 100¥	1161.98 1068.20	1122.02 1031.46	1EUR 1CNY	1383.74 184.06	1329.76 166.54
---------	-------------------	---------	-----------------	---------------	----------------	-------	--------------	--------------------	--------------------	--------------	-------------------	-------------------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지 내륙으로 북상

전라·경상도 지역 재배 비중 2019년 3.7%로 확대 제주신 울해 전해향·레드향 재배 늘고 한라봉 감소 급식의존도 높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다변화 시급

제주에 제외한 내륙지역에서 재배되는 한라봉 등 만감류 비중이 소폭이지만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재배지도 점차 북상하면서 앞으로의 생산량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만감류 중 한라봉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전해향과 레드향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2021 제주지역 전략작물 전망' 발표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 날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의 '감귤 수급동향과 전망' 발표에 따르면 만감류의 내륙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2015년 3.3%에서 2019년 3.7%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내륙지역 재배비중은 전남이 67.7%로 가장 높았고 전북 12.5%, 경남 9.3%, 경북 8.8%, 경기 0.9%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경북, 경기 지역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각각 5%포인트(p), 8%p, 1%p 상승했다.

제주지역의 올해 감귤재배면적은 2만1061ha로, 전년 대비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하

우감귤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391ha로 전망됐다. 레드향과 전해향 재배면적은 각각 884ha, 991ha로 전년보다 각각 4.2%,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한라봉 재배면적은 1621ha로, 지난해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노지온주 재배면적도 0.6% 감소한 1만5373ha로 예상됐다.

또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행태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감귤의 주 구매장소는 대형마트가 27.5%로, 2018년(30.8%)보다 줄어든 반면 직거래(택배) 구매는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6.6%로 늘었다. 같은기간 인터넷쇼핑몰과 TV 홈쇼핑 구매비율도 8.1%에서 13.3%로 상승했다. 또 지난해 온라인쇼핑으로

감귤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6.5%로 조사됐는데 구매후 만족도는 68.8%로, 불만족(3.3%)과 보통(27.9%)에 비해 크게 앞섰다.

학교 급식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위태석·하지희·이균식 연구원은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발표를 통해 "개혁 연기로 친환경농산물의 대체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했다"며 "소비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해 비상상황 때 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미숙기자

오메기맑은술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제주 선인들이 빚어 왔던 전통 방식으로 제조

제주술익는집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메기맑은술(청주·사진)이 2021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약주·청주'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한민국 주류대상에는 약 600여개 업체가 전통주 등을 출품해 선을 보였다.

제주술익는집에서 생산한 오메기맑은술(알코올도수 16%)의 제조과정은 차조기루를 익반죽해 만든 구멍떡을 오메기떡이라고 하는데, 이 술떡을 익히고 누룩과 치대어 발효시킨다. 이후 항아리에서 오랜기간 저온 발효를 거친 후 노랑고 농익은 맑은 부분만 따낸 술이 오메기맑은술이다.

상큼한 과일향이 돌고, 진하고 부드러운 단맛과 산뜻한 신맛이 잘 어



우진게 특징이다.

오메기맑은술 관계자는 "제주 선인들이 빚어 왔던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오메기맑은술을 빚고 있다"며 "단맛, 신맛이 잘 어우러져 있어 어떠한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오메기맑은술은 2017년에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중화권 20~30대 타겟으로 제주관광 홍보 착수 내수시장 부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가 중화권을 타겟으로 관광객 유치 홍보전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명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화권 20~30대를 대상으로 제주 특색에 맞는 글로벌 상품 및 홍보를 통해 제주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것으로, 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여행지로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 인지도 제고 프로모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최근 집계한 제주관광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총 1023만6104명으로 전년 의 1528만5397명

에 비해 33% (504만9293명)나 감소했다. 이 중 내국인은 1002만3337명으로 전년(1355만7229명)대비 26.1% 감소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21만2767명(중국인 107만9133명·62.4%) 대비 87.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으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업계에서는 제주관광의 내수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등으로 아직 단체 관광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서지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지 중 하나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디지털, 랜선 등을 통해 제주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택배비·방역비 등 지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의 택배비 부담 절감과 홍보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홍보비, 품질검사비, 방역비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이달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115개소)가 사용한 내역에 한해 최대 7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현황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각 지원항목에 대한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도내 관련 사업자는 이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택배비용 또는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제품 등의 품질검사비와 사업장 방역비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센터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해, 참여 사업자는 최대 17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제주6차산업.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봄 기운 출렁이는 협재해수욕장.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을 거닐며 제주의 봄을 강희만기자

제주에 심야 무인 '스마트슈퍼' 조성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

제주에 주간은 유인, 심야시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가 조성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지역을 포함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

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프

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내달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매장 면적 165㎡ 미만 동네슈퍼로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 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해상질소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식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